

여성관절염질환자의 의복개선을 위한 의복불편정도에 관한 연구

한 승 희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A Study on the Clothing Inconvenience Levels for the Clothing Improvement of Female Arthritis Patients

Han, Seung-Hee

Lecturer, Dept.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the investigation to relieve into the clothing inconvenience levels and to need by arthritis patients who experience clothing difficulties in daily living even without showing conspicuous physical disabilities.

For this study, person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51 female arthritis patients, using a questionnaire form consisting of a total of 206 items. Data analysis were done with spss 12.0 for the frequency analysis, cross tab analysis, t-test, and ANOV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survey subjects were diverse in their age from 20s to 60s and 18.5% of them have need of other's assistance at the time of getting dressed or undressed of clothing. The knee part was felt to be the most uncomfortable, causing the inconveniences in wearing pants or panties.

2. The investigation into the inconvenience levels at the time of dressing or undressing of clothing was indicated that the wearing of pants was the hardest movement to arthritis patients, as the items relating to the movements for putting feet into or pulling them out of pants and those for raising pants over the hip were also accompanied by the feeling of pains. In addition, the aged arthritis patients felt the clothes-wearing movements more difficult.

3. The survey on the kind and inconvenience levels for the clothes currently being worn showed the highest wearing ratio for the pants, which were pointed out to be the most inconvenient.

4. As for the clothing improvement, the needs were located as a whole in the sufficiency in measures of pants crotch and circumference items, the flexibility in materials, the short length of pants, or the front clearance.

Key Words : 관절염질환자(arthritis patient), 통증(pain), 불편정도(inconvenience level), 착탈의(dressing or undressing)

1. 서론

관절염의 종류는 130여종이나 되며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분류된다. 퇴행성관절염은 주로 체중부하 관절을 침범하여 통증과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만성질환으로 통증과 이완부위의 변형 및 운동제한을 초래하여 일상생활을 쉽게 하거나 빨리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심할 경우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한다(김문호, 2004)¹⁾. 이러한 상황은 주위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사회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노년기에 호발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생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2%가량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3~4배 정도 높은 발생율을 보인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지속적인 통증과 그로 인한 신체적 기능장애, 피곤함과 무기력감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김성윤, 1997)²⁾, 이들은 항상 피곤하고 전신의 허약증을 비롯하여 수족을 움직이기 힘들어하고 통증을 호소하고 움직이면 아파하고 주먹을 꼭 쥐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다(박성희, 1999)³⁾.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 면접 및 보건 의식행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활동의 제한을 주는 10가지 원인 중 1순위가 관절염과 류마티즘(39.4%)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에 대한 조사한 결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집단이 앓아 본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통증과 불편감이 많고 불안과 우울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 집단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⁴⁾. 따라서 이러한 관절염질환자들의 일상생활 제한에 따른 삶의 질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절염질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립적 의생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써 현격하게 눈에 띄

는 장애를 보이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생활 장애를 겪고 있는 관절염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의복불편정도와 요구점을 알아보는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관절염질환에 대응하는 의생활 방법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환자복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기성복 업체에 제공하여 관절염질환자들이 편안하면서도 심미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어 삶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면접 설문을 통하여 관절염질환자들의 불편부위 및 불편의복을 알아본다.
2. 관절염질환자들의 의복 착용행동에 따른 불편정도를 알아본다.
3. 관절염질환자들의 현재 착용중인 의복종류와 불편정도, 의복개선 요구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관절염과 일상생활활동(ADL)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이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들의 기능수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한 인간이 독립해서 생활하기 위해 행하는 기본적인 매일 반복되는 일련의 신체적인 동작군을 말한다. 이러한 동작군은 식사, 배변 등의 목적에 따라 목적동작으로 분류되고 각 목적동작은 다시 그 목적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동작으로 분류된다. ADL에는 많은 동작이 있으며, 대표적인 동작은 기거동작(起居動作), 식사동작, 의복의 착탈동작, 이동동작(移動動作), 배변에 관한동작, 입욕동작(入浴動作), 의사소통에 관한 동작 등이 있다(강수균 등, 2001)⁵⁾. 이러한 ADL은 WHO국제생활기능분류(ICF)에서 <표 1>⁶⁾과 같이 3가지 장애수준 중 하나로 분류하여 일상생활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장애자로 포함시켜 이들을 배려한 의복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표 1> 장애의 3가지 수준

1	기능장애·구조장애 (機能障害·構造障害)	뇌졸중에 의한 편마비로 한쪽 손이나 발이 움직이지 않던가 신체의 손상으로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 또는 기능상 어떠한 상실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
2	활동제한 (活動制限)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먹기, 걷기, 의복 착용하기 등의 일상생활동작(ADL)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경우
3	참가제약 (參加制約)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일상적 역할을 달성하는 것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방해받거나 하는 경우. 사회환경이나 제도의 불편, 정보입수의 곤란, 물건매매의 불편, 사람의 의식편견 등이 사회 속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표 2> 성인의 연령별 활동제한의 원인

순위	19~44세	45~64세	65~74세	75세 이상
1	기타사고(15.2%)	관절염(21.4%)	관절염(33.4%)	관절염(32.2%)
2	등(허리), 목의 문제 (11.9%)	등(허리), 목의 문제 (10.7%)	뇌졸중(11.0%)	노령(11.6%)
3	우울/불안(6.7%)	뇌졸중(10.2%)	등(허리), 목의 문제 (7.5%)	뇌졸중(7.9%)
4	관절염(6.1%)	기타사고(6.91%)	기타사고(6.0%)	등(허리), 목의 문제 (6.8%)
5	청각문제(4.9%)	당뇨병(5.5%)	당뇨병(5.4%)	청각문제(6.3%)

ADL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야하며, 질병의 만성적인 진행과 함께 ADL의 의존상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정신적 수치심과 사회적 건강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2006)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상생활의 활동제한 원인을 알아본 결과 제 1순위가 '관절염과 류마티즘' 때문이었으며, 이것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관절염이 성인 후기 일상생활의 활동을 제한하는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표 2>⁷⁾.

박성희(1999)⁸⁾는 ADL에 관한 연구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환자 중 여자의 75%가 일상생활 활동상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단추 끼우기(52.5%), 구두 끈매기(52.5%)의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단추가 없는 옷(티셔츠 등)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처럼 옷입기 활동이 의존적인 사람들은 대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복잡하고 세밀한 동작은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손과 손목부위에 이환되어 세밀한 손동작을 필요로 함에도 손에 힘을 주지 못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환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가족에 대한 미안감과 죄스러움 등의 정신적인 고통도 있으므로 옷입기처럼 매일 수행해야 되는 ADL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김미한(2002)⁹⁾은 퇴행성관절염 노인의 92.6%가 보통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러한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통증은 주관적이고 지속적이므로,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우울과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도 야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Mackinnon, Avison와 McCain(1994)¹⁰⁾는 류마티스 관절염질환자들에게는 통증보다 기능제한이 더 큰 문제라고 보았으며, 심한 기능제한을 가진 사람이 약한 기능제한을 가진 사람보다 일, 여가활동, ADL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였다.

2. 관절염과 의복관련 선행연구

관절염과 의생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의복착용 행동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Dallas와 White (1982)¹¹⁾는 옷입기 동작 중 어깨를 돌리고, 구부려 팔을 소매에 넣어야 하고, 지퍼를 올리기 위해 양손을 일정하게 뻗어야 하고, 여밈장치를 능숙히 잠그는 것과 같이 관절을 크게 움직이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양손의 양호한 움직임과 손의 충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동작들이 필요한 옷입기 동작은 관절염질환자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수행불가능한 일 일수도 있다고 하였다.

Naomi Reich와 Patricia Otten(1991)¹²⁾은 우편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류마티스와 골관절염질환자 787명의 의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여성이었고, 이들이 기성복을 구입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은 입을 것(35%)>맞음새(32%)>사이즈(26%)>불편함(25%)과 스타일(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험자의 12%는 관절염 때문에 기성복을 수선할 필요가 있으며, 희망하는 수선부위로 옷의 길이와 둘레, 여밈 장치, 넓은 개구부, 넓은 암홀, 밑위길이 등을 들었다. 스타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여성은 뒤트임, 커프스에 단추가 달린 긴 소매, 터틀넥, 브래지어 착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여밈 장치에 대해 벨크로를 제외한 지퍼, 훅 앤 아이, 스냅, 특히 작은 단추가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관절염질환자들은 옷입기가 용이하도록 앞트임(80%), 편한 허리라인(44%), 좀 더 넓은 여밈(opening)과 편한 어깨부위(34%), 즉 좀 더 넓은 암홀과 넓은 소매, 기능적인 여밈 디자인과 위치가 필요하고, 희망하는 소재로 폴리에스터/면(88%), 면(75%), 아크릴(49%), 울(37%) 순이며, 가벼운 우븐(64%)과 가벼운 니트(57%)를 요구하였다. 관절염질환자 중 50%가 스스로 옷을 입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5%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관절염 증상이 있는 경우 불편한 옷은 몸의 피로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여 복합적인 제한을 가져오므로, 이들이 좀 더 편리한 의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면에서 개선된 디자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관절염질환자의 의복 불편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은 현재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병원을 통원하고 있는 여성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피험자는 2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총 151명 중 60대가 가장 많았고 (23.2%, 35명) 그 다음이 50대(21.9%, 33명)였다. 이처럼 노인 질환의 하나로 알려진 관절염이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PC, 자가용 등으로 무릎관절의 사용빈도가 줄고, 운동의 붐을 타고 외상성 관절염이 증가했으며, 기름진 식품과 무리한 다이어트 등(경향신문, 2006, 9)¹³⁾으로 젊은 세대에서도 관절염질환자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과거 보다 많아 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관절염의 발생시기는 3년 미만인 21.2%(32명), 5~10년이 19.9%(30명) 이었으며, 손가락변형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4.6%(22명)를 차지하였다.

<표 3> 조사대상 관절염질환자의 특성

	항목	명(%)
연령	20대	17(11.3)
	30대	25(16.6)
	40대	24(15.9)
	50대	33(21.9)
	60대	35(23.2)
	70대	17(11.3)
관절염 발생시기	1년 미만	29(19.2)
	3년 미만	32(21.2)
	5년 미만	28(18.5)
	5~10년 미만	30(19.9)
	11~20년 미만	19(12.6)
	21~30년 미만	5(3.3)
	30년 이상	8(5.3)
손가락변형	있다	22(14.6)
	없다	129(85.4)
합 계		151(100.0)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면접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06년 4월 24일 ~ 2006년 5월 4일까지 정형외과와 관절염클리닉이 설치되어있는 개인병원에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5월 10일 ~ 2006년 6월 26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K종합병원 관절, 류마티스 센터의 로비에서 실시하였다. 총 180부를 수거하고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15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내용 및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는 여성 관절염질환자가 가장 불편해 하는 관절과 의복 및 의복 착용시의 불편한 동작을 알아보고 어떤 연령대가 의복 착용을 가장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20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순분(1991)¹⁴⁾과 Reich 와 Otten(1991)¹⁵⁾ 및 예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내용 3문항, 현재 관절염증상에 관한 내용 9문항, 의복 착용시 불편 정도에 관한 내용 32문항, 의복 착용시 통증유무에 관한 내용 32문항, 현재 착용중인 의복상태에 관한 내용 62문항, 현재 착용중인 의복의 불편정도에 관한 내용 62문항, 의복수선 사항에 관한 내용 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착용중인 의복상태와 착용중인 의복의 불편정도에 관한 내용은 설문조사 당시 병원을 내원하였을 때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하였고, 수선사항에 관한 내용은 자유기술 하도록 하였다.

불편정도는 5점 리커트척도(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이며, 관절염질환자의 의복불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의 사후검정으로 Scheffé-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관절염질환자의 불편부위 및 불편의복

1) 신체불편부위와 불편의복의 상관관계

관절염 질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신체부위와 의복 착용시 불편의복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다중응답결과 가장 불편해하는 부위는 무릎부위로 68.2%(103명)였으며 그 중 97.1%(100명)은 바지가, 49.5%(51명)이 팬티의 착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손가락부위를 32.5% (49명)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바지의 착용의를 59.2%(29명)이, 단추가 있는 셔츠/블라우스의 착용의를 55.1%(27명)이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손목부위와 팔꿈치부위를 제외한 손가락(59.2%), 발가락(60.6%), 발목(70.3%), 무릎(97.1%), 고관절(92.0%), 허리부위(100.0%)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관절염질환자는 의복 중 모두 바지의 착용의가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관절염질환자는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부위가 한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위에 걸쳐져 있는 질환이므로 상체의 신체불편부위가 상의 뿐만이 아니라 하의의 착용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중응답자중 78.1%(118명)이 바지의 착용의가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2) 연령대별 신체불편부위

연령대별 신체불편부위를 다중응답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청년은 무릎부위 57.7%(15명)와 손가락부위 46.2%(12명), 중년은 무릎부위 63.2%(55명)와 발목 31.0%(27명), 노년은 무릎부위 86.8%(33명)와 어깨부위 34.2%(13명)가 가장 불편한 신체부위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노화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무릎부위에 대한 불편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에 상관없이 무릎부위가 가장 불편한 부위라고 응답한 결과로 볼 때 관절염질환자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관절염질환자는 한 부위만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여러 부위가 복합적으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신체불편부위와 불편의복

N=151:(다중응답)

		의복 착용시 불편의복													Total	
		니트류	T-셔츠	셔츠/블라우스	터틀넥	재킷	원피스	브래지어	내의	팬티	바지	스커트	양말	기타		
신체 불편 부위	손가락	N	4	17	27	2	6	0	9	0	12	29	2	12	0	49
		열%	8.2	34.7	55.1	4.1	12.2	0.0	18.4	0.0	24.5	59.2	4.1	24.5	0.0	32.5
	손목	N	0	14	21	2	7	0	11	0	1	12	0	4	3	34
		열%	0.0	41.2	61.8	5.9	20.6	0.0	32.4	0.0	2.9	35.3	0.0	11.8	8.8	22.5
	팔꿈치	N	5	3	8	0	0	0	4	0	0	3	0	1	0	9
		열%	55.6	33.3	88.9	0.0	0.0	0.0	44.4	0.0	0.0	33.3	0.0	11.1	0.0	6.0
	어깨	N	3	19	23	0	5	0	4	2	8	27	2	3	1	37
		열%	8.1	51.4	62.2	0.0	13.5	0.0	10.8	5.4	21.6	73.0	5.4	8.1	2.7	24.5
	발가락	N	0	1	4	0	0	2	0	3	1	6	0	2	0	10
		열%	0.0	10.0	40.0	0.0	0.0	20.0	0.0	30.0	10.0	60.0	0.0	20.0	0.0	6.6
	발목	N	3	6	9	0	1	2	3	3	13	26	0	5	3	37
		열%	8.1	16.2	24.3	0.0	2.7	5.4	8.1	8.1	35.1	70.3	0.0	13.5	8.1	24.5
	무릎	N	4	12	14	0	0	2	4	7	51	100	4	21	4	103
		열%	3.9	11.7	13.6	0.0	0.0	1.9	3.9	6.8	49.5	97.1	3.9	20.4	3.9	68.2
	고관절	N	2	0	2	0	0	0	3	6	10	23	2	6	0	25
		열%	8.0	0.0	8.0	0.0	0.0	0.0	12.0	24.0	40.0	92.0	8.0	24.0	0.0	16.6
	허리	N	0	4	6	0	0	0	0	4	20	29	0	11	0	29
		열%	0.0	13.8	20.7	0.0	0.0	0.0	0.0	13.8	69.0	100	0.0	37.9	0.0	19.2
Total	N	7	28	43	2	7	2	15	11	60	118	4	26	7	151	
	%	4.6	18.5	28.5	1.3	4.6	1.3	9.9	7.3	39.7	78.1	2.6	17.2	4.6	100.0	

*Percentages and totals are based on respondents.

<표 5> 연령대별 신체불편부위

N=151:(다중응답)

		신체 불편부위										Total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발가락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연령 대	청년	N	12	7	2	2	3	4	15	4	5	26
		열%	46.2	26.9	7.7	7.7	11.5	15.4	57.7	15.4	19.2	17.2
	중년	N	25	21	6	22	5	27	55	17	13	87
		열%	28.7	24.1	6.9	25.3	5.7	31.0	63.2	19.5	14.9	57.6
	노년	N	12	6	1	13	2	6	33	4	11	38
		열%	31.6	15.8	2.6	34.2	5.3	15.8	86.8	10.5	28.9	25.2
Total	N	49	34	9	37	10	37	103	25	29	151	
	%	32.5	22.5	6.0	24.5	6.6	24.5	68.2	16.6	19.2	100.0	

*Percentages and totals are based on respondents.

2. 의복 착용 행동에 따른 불편정도

1) 신체불편부위별 의복 착용시 불편정도 및 통증인식

신체불편부위별 의복 착용행동시 불편정도 및 통증인식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목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의 착용시 팔꿈치부위가 불편한 응답자는 '매우 불편하다'(1.25점)라고 응답하였으며, '바지통에 다리를 끼울때'의 착용시 무릎, 고

관절, 허리가 불편한 응답자 모두 '매우 불편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탈의시에는 '바지통에서 다리를 빼낼 때'의 동작에서 무릎, 고관절 부위가 불편한 응답자가 '매우 불편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관절염질환자가 의복 착용시 어떤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는가의 응답결과 통증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151명 중 '바지통에 다리를 끼울 때'(103명), '바지에서 다리를 빼낼 때'(76명)의 동작에서 반 이상이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의 동작은 바지를

<표 6> 신체불편부위별 의복 착용시 불편정도 및 통증인식

N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발가락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Total	통증인식 (N=151)		
											F	명	%
	11	10	4	10	6	12	82	12	4	151			
옷을 몸 가까이 가져와 들고 펼 때	2.73	2.50	3.25	2.30	3.50	3.25	3.38	3.33	3.50	3.19	6.285***	18	11.92
소매에 팔을 집어넣을 때	2.45	2.30	2.00	2.30	3.50	3.25	3.17	3.67	3.50	3.04	6.499***	31	20.53
단추를 채울 때	2.09	2.00	2.75	3.00	3.17	2.75	3.32	2.83	3.50	3.02	7.031***	25	16.56
스냅을 채울 때	2.18	2.30	2.25	3.20	3.50	3.00	3.39	3.00	3.50	3.13	6.901***	24	15.89
지퍼를 올릴 때	2.55	3.10	2.75	3.20	3.50	3.00	3.39	3.33	3.50	3.25	3.064**	6	3.97
브래지어 입을 때	2.36	2.10	2.75	3.00	3.50	3.00	3.23	2.67	3.50	3.02	4.234***	18	11.92
소매의 커프스단추를 잠글 때	2.27	2.30	3.25	2.10	2.67	3.00	3.01	1.67	3.50	2.75	9.322***	21	13.91
목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2.55	2.70	1.25	2.00	3.00	3.25	3.02	2.33	3.00	2.81	5.817***	13	8.61
허리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3.00	3.00	3.00	2.50	3.00	3.25	3.26	2.83	3.00	3.11	2.404*	6	3.97
영덩이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3.00	2.80	3.00	2.30	3.00	3.25	3.27	3.00	3.00	3.11	3.789***	6	3.97
단추를 뺄 때	2.64	2.10	2.75	3.50	3.50	3.25	3.39	2.83	4.00	3.21	6.565***	17	11.26
스냅을 끌 때	2.36	2.50	2.75	3.50	3.50	3.25	3.40	2.83	4.00	3.22	5.715***	13	8.61
지퍼를 내릴 때	2.73	3.00	2.75	3.50	3.50	3.25	3.40	2.83	4.00	3.28	3.042**	7	4.64
소매에서 팔을 뺄 때	2.73	2.00	2.00	2.50	3.50	3.25	3.15	3.17	4.00	3.01	6.289***	24	15.89
브래지어를 벗을 때	2.82	2.30	2.00	3.20	3.50	3.25	3.28	3.50	4.00	3.19	5.905***	13	8.61
목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2.36	2.20	2.00	2.10	3.00	3.25	3.01	2.50	3.50	2.81	5.855***	13	8.61
허리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3.00	2.70	3.00	2.80	3.00	3.25	3.21	3.17	3.50	3.13	1.905	6	3.97
영덩이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3.00	2.70	3.00	2.80	3.00	3.25	3.21	3.17	3.50	3.13	1.905	6	3.97
바지통에 다리 끼울 때	2.64	2.50	3.25	2.60	3.00	2.75	1.87	1.67	1.50	2.14	10.075***	103	68.21
바지를 엉덩이 위로 올릴 때	2.73	2.40	3.25	3.10	3.33	2.75	2.10	2.17	2.50	2.38	4.321***	63	41.72
허리의 지퍼를 올릴 때	2.91	2.90	3.00	3.30	3.50	3.25	3.07	3.33	4.00	3.14	3.942***	3	1.99
허리 걸고리 걸 때	3.00	2.60	3.25	3.50	3.50	3.25	3.16	3.00	4.00	3.17	4.163***	6	3.97
스커트 혹은 아이 걸 때	3.09	2.80	3.25	3.80	3.50	3.00	3.16	3.00	4.00	3.19	3.899***	3	1.99
허리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2.82	2.40	2.75	2.70	3.50	3.00	2.68	2.17	2.00	2.68	2.955**	27	17.88
영덩이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2.91	2.60	2.75	2.70	3.50	3.25	2.77	2.17	2.00	2.76	3.907***	19	12.58
허리의 지퍼를 내릴 때	3.09	3.00	3.25	3.80	3.50	3.25	3.22	3.67	3.50	3.29	3.729***	0	0.00
허리 걸고리 뺄 때	3.00	2.80	3.25	3.80	3.50	3.25	3.22	3.67	3.50	3.27	4.490***	3	1.99
스커트 혹은 아이 걸 때	3.00	2.80	3.25	3.80	3.50	3.25	3.13	3.67	3.50	3.23	3.578***	3	1.99
영덩이 아래로 바지/스커트 내릴 때	2.82	2.70	2.75	3.30	3.50	3.00	2.55	2.83	3.00	2.74	1.968	21	13.91
바지통에서 다리 빼낼 때	2.64	2.50	2.75	2.50	3.33	3.00	1.99	1.67	2.50	2.25	9.761***	76	50.33
허리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2.73	2.60	2.75	2.80	3.50	2.75	2.44	2.17	3.00	2.56	2.526*	31	20.53
영덩이둘레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2.82	2.60	2.75	2.80	3.50	2.75	2.51	2.17	3.00	2.61	2.510*	29	19.21

*P<0.05 **P<0.01 ***P<0.001

입고 벗기 위하여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놓아야 하는 동작으로, 관절염질환자가 불편한 신체부위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무릎(82명)과 고관절(12명)에 통증을 강하게 느끼게 하므로 관절염질환자에게 시급히 해결해주어야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을 작게 할 수 있도록 패턴에서 배려해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바지를 엉덩이 위로 올릴 때도 통증을 느끼고 있어 쉽게 엉덩이 위로 올릴 수 있도록 개구부를 넓게 하는 등의 배려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관절염상태에 따른 의복 착탈시 불편 인식정도

스스로 느끼는 관절염 상태에 따라 의복 착탈시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관절염 상태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복 착탈시에 불편함이 '거의 없다'와 '자주 불편하다'로 나뉘어져 있다. 즉 환자가 자신의 관절염 상태를 경미하게 느끼고 있어도 의복착탈이 자주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반대로, 자신의 관절염상태가 경미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복착탈시에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환자의 주관적 견해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관절염 상태를 심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주' 불편함을 느끼며, 매우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주' 혹은 '가끔' 불편하다고 여기고 있어, 관절염상태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으로는 의복착탈시 불편함 인식정도와와의 상관성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자주 불편하다'고 응답한 질환자가 61명(40.4%)으로 나타나 관절염질환자는 관절염 경중상태에 관계없이 의복착탈시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3) 연령대간 의복 착탈시 불편정도

연령대별 관절염질환자의 착탈의시 불편함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같은 관절염 질환자라 하더라도 노년이 청년에 비하여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하의의 착탈의가 상의의 착탈의보다 불편 정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익한 차이를 보인 항목 중 '소매의 커프스 단추를 채울 때'와 '목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고 벗을 때'의 3항목에서는 청년이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불편부위인 손가락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46.2%) <표 5>여겨진다. 또한 <표 5>에서 모든 연령대가

<표 7> 관절염상태에 따른 의복 착탈시 불편 인식정도

		의복 착탈시 불편함 인식정도				Row total (%)	
		매우 자주	자주	가끔	거의 없음	(%)	
관절염 상태	경미		27	16	28	71	
			38.0	22.5	39.4	100.0	
	심함		44.3	35.6	73.7	47.0	
			3	22	18	6	49
			6.1	44.9	36.7	12.2	100.0
			42.9	36.1	40.0	15.8	32.5
매우 심함		4	12	11	4	31	
		12.9	38.7	35.5	12.9	100.0	
Column total(%)		57.1	19.7	24.4	10.5	20.5	
		7	61	45	38	151	
		4.6	40.4	29.8	25.2	100.0	

$\chi^2=21.695^{**}(df=6)$

**P<0.01

<표 8> 연령대간 관절염질환자의 의복 착용시 불편정도 차이

		연령						전체 (N=151)		F-value		
		청년 (N=26)		중년 (N=87)		노년 (N=38)		M.	S.D			
		M.	S.D	M.	S.D	M.	S.D					
상의	착의	옷을 몸 가까이 가져와 들고 펼 때	3.38	0.85	3.14	0.67	3.18	0.65	3.19	0.70	1.25	
		소매에 팔을 집어넣을 때	3.31	1.01	3.00	0.75	2.95	0.87	3.04	0.83	1.60	
		단추를 채울 때	3.12	0.99	2.99	0.86	3.03	0.68	3.02	0.84	0.23	
		스냅을 채울 때	3.35	0.98	3.08	0.82	3.11	0.61	3.13	0.81	1.12	
		지퍼를 올릴 때	3.54b	0.86	3.24ab	0.59	3.08a	0.63	3.25	0.67	3.85*	
		브래지어를 입을 때	3.31	0.84	2.97	0.88	2.95	0.77	3.02	0.85	1.82	
		소매의 커프스단추를 채울 때	2.42a	0.95	2.70ab	0.75	3.08b	0.67	2.75	0.79	6.01**	
		목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2.62a	0.85	2.74ab	0.90	3.13b	0.62	2.81	0.84	3.94*	
		허리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3.00	0.69	3.11	0.64	3.18	0.56	3.11	0.63	0.66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3.04	0.72	3.09	0.62	3.18	0.56	3.11	0.62	0.47	
탈의	탈의	단추를 뺄 때	3.38	0.85	3.18	0.83	3.13	0.62	3.21	0.79	0.88	
		스냅을 Rm를 때	3.38	0.94	3.22	0.80	3.11	0.61	3.22	0.78	0.98	
		지퍼를 내릴 때	3.65b	0.69	3.24a	0.76	3.11a	0.61	3.28	0.73	4.83**	
		소매에서 팔을 뺄 때	3.35	1.06	2.94	0.74	2.95	0.73	3.01	0.81	2.72	
		브래지어를 벗을 때	3.54b	0.76	3.18ab	0.69	2.95a	0.73	3.19	0.73	5.29**	
		목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2.58a	0.86	2.76ab	0.79	3.11b	0.61	2.81	0.78	4.27*	
		허리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3.19	0.63	3.09	0.54	3.16	0.55	3.13	0.56	0.41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3.19	0.63	3.09	0.54	3.16	0.55	3.13	0.56	0.41	
하의	착의	바지통에 다리를 끼울 때	2.54b	0.71	2.23b	0.71	1.66a	0.63	2.14	0.75	14.36***	
		바지를 엉덩이 위로 올릴 때	3.15c	0.83	2.41b	0.79	1.76a	0.75	2.38	0.90	24.40***	
		허리의 지퍼를 올릴 때	3.27	0.72	3.15	0.42	3.03	0.37	3.14	0.48	2.08	
		허리의 걸고리를 걸 때	3.35	0.75	3.14	0.53	3.11	0.39	3.17	0.55	1.78	
		스커트의 흑 앤 아이를 걸 때	3.35	0.75	3.21	0.57	3.03	0.49	3.19	0.59	2.42	
	탈의	탈의	허리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3.08b	0.80	2.63a	0.72	2.50a	0.60	2.68	0.73	5.56**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입을 때	3.08b	0.80	2.75ab	0.69	2.58a	0.60	2.76	0.70	4.12*
			허리의 지퍼를 내릴 때	3.65c	0.63	3.30b	0.46	3.03a	0.28	3.29	0.50	14.50***
			허리의 걸고리를 뺄 때	3.54b	0.81	3.30ab	0.46	3.03a	0.28	3.27	0.53	8.26***
			스커트의 흑 앤 아이를 걸 때	3.54b	0.81	3.30b	0.46	2.84a	0.59	3.23	0.61	13.33***
엉덩이 아래로 바지/스커트 내릴 때	3.23b	0.86	2.85b	0.76	2.16a	0.75	2.74	0.85	16.85***			
바지통에서 다리를 빼낼 때	2.62b	0.70	2.28ab	0.73	1.92a	0.59	2.25	0.72	8.04***			
허리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3.04c	0.82	2.61b	0.64	2.13a	0.74	2.56	0.75	13.50***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이 작은 옷을 벗을 때	3.08b	0.80	2.59a	0.64	2.34a	0.71	2.61	0.72	8.991***			

*P<0.05 **P<0.01 ***P<0.001

Scheffé-test 결과 P<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a<b<c).

무릎부위를 제1의 불편부위로 응답하였으나 청소년이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는 3항목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항목에서 노년이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하의의 '바지통에 다리를 끼울 때' '바지통에서 다리를 빼낼 때' '바지를 엉덩이위로 올릴 때'의 항목은 다른 항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1점 대)을 보여, 이러한 동작이 노년 여성 관절염질환자가 가장 불편해 하는 동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관절염질환자라 하더라도 의복착탈행동을 가장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노년층 관절염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가장 입고 벗기 힘들어하는 바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스스로 편하게 의복착탈을 할 수 있도록 바지 원형을 설계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3. 현재 착용중인 의복종류와 불편정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설문조사 당시 입고 온 의복을 살펴본다, 그들이 즐겨입는 의복의 형태와 그 의복의 불편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총 151명을 대상으로 중복집계한 결과, 상의류 중 외투는 재킷과 점퍼로 구분하여 재킷을 35명이 입고 있었고, 점퍼를 17명이 입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앞트임으로 된 외투였고, 단추나 스냅이 달려 있는 여밈장치를 불편해 하였으며 (M=2.4), 소매 형태는 100% 셀 인 슬리브였다. 외투의 길이는 엉덩이 밑길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셔츠/블라우스류는 셔츠 26명, 블라우스 5명이 입고 있었으며 앞트임이 80%이상을 차지하였다. 여밈장치는 단추와 스냅이 96.8%를 차지하고 있으나 불편해 하고 있었으며, 소매 형태 또한 모두 셀 인 슬리브였다. 면과 면혼방이 많았으며 엉덩이 밑길이가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티셔츠류는 58명이 입고 있었고 면·면스판이 많았으며 불편해 하는 사항이 없었다. 니트류는 46명이 입고 있었으며 응답자들은 여밈장치 중 단추와 스냅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소재에 있어서 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브래지어는 139명이 착용하고 있었고 테이프형의 어깨끈 브래지어를 82%가 착용하고 있었으나 불편해 하지는 않았다. 즉 상의류에 있어서는 여밈장치에서 불편함

을 인식하고 있었고, 니트류와 스판이 함유된 소재에 대하여 편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셀인 슬리브로 된 상의를 선호하며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피스류는 16명이 입고 있었으며, 트임의 종류에 선 앞트임을 불편해 하였다. 또한 여밈장치 중 단추보다 지퍼를 더 불편해 하였는데 이것은 지퍼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팔을 움직이는 동작이 커짐으로써 불편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의류에 있어서, 스커트는 18명이 입고 있었으며, 트임이 없이 고무줄과 끈으로 여밈장치가 된 스커트를 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재는 면과 면스판이 많았으며 무릎길이가 72.2%를 차지하였다. 바지는 117명이 입고 있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으며, 대부분이 앞트임에 지퍼로 된 여밈장치를 사용하고 있었고 소재는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많았으며 복사뼈길이가 55.6%를 차지하고 있었다. 양말류는 발목스타킹과 팬티스타킹을 불편해하였다.

이처럼 관절염질환자는 <표 5>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단순히 착탈의시 불편한 의복을 지적하게 하였을 때에는 바지를 가장 불편한 의복으로 지목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바지의 착용률이 높았다. 또한 바지의 모든 항목에서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선 바지가 일단 착용하고 나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복이고, 나름대로 개인에 적합한 디자인과 사이즈를 선별하여 착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항상 착용하고 있는 의복에 대하여 익숙함을 길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의복 개선 요구점

1) 수선경험과 내용

응답자들은 불편함을 느끼면 수선보다는 편한 옷을 구매하는 쪽을 선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관절염 때문에 의복에 불편함을 느껴 수선을 해보았다고 대답한 경우는 9명(6%)에 불과하였다. 수선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수선내용은 걷기 불편하므로 바지 길이를 짧게 하고, 무릎의 부기와 무릎보호대 착용으로 바지통을 넓히고,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눌러 허리둘레를 늘렸다고 응답하였다. Naomi Reich와 Patricia

<표 9> 현재 착용중인 상의의 불편정도

N=대상집계

현재 착용 의복		N(%)	불편정도		현재 착용 의복		N(%)	불편정도			
			M.	S.D				M.	S.D		
외투	종류	재킷	35(67.3)			트임	앞 반트임	18(31.0)	3.0	0.00	
		점퍼	17(32.7)				트임 없음	40(69.0)	3.4	0.55	
		총계	52(100.0)				총계	58(100.0)			
	트임	앞트임	52(100.0)	3.5	0.00	네트라인	V	18(45.0)	3.5	0.35	
		지퍼	23(44.2)	3.1	0.55		라운드	19(47.5)	3.2	0.44	
	여밌장치	단추/스냅	29(55.8)	2.4	0.37		스퀘어	3(7.5)	3.0	0.00	
		총계	52(100.0)				총계	40(100.0)			
	커프스	잠금 있음	38(73.0)	2.8	0.55	소재	면	50(86.2)	3.3	0.55	
		잠금 없음	14(27.0)	3.3	0.23		면스판	4(6.9)	4.0	0.00	
		총계	52(100.0)				기타	4(6.9)	4.0	0.00	
	칼라	셔츠	34(65.3)	3.3	0.55	소매	총계	58(100.0)			
		차이니스	4(7.7)	3.5	0.00		셀인	55(94.8)	3.1	0.55	
		칼라 없음	14(27.0)	3.0	0.00		래글런	3(5.2)	3.0	0.00	
		총계	52(100.0)			총계	58(100.0)				
	소재	마	2(3.8)	3.0	0.00	길이	엉덩이 위	36(62.1)	3.0	0.00	
		면	19(36.5)	3.4	0.55		엉덩이 밑	22(37.9)	3.1	0.38	
		면/폴리	4(7.7)	3.0	0.39		총계	58(100.0)			
		폴리에스테르	18(34.6)	3.1	0.37	트임	앞트임	5(10.9)	3.8	0.40	
		기타	9(17.4)	3.0	0.00		앞 반트임	11(23.9)	3.8	0.22	
		총계	52(100.0)				트임 없음	30(65.2)	3.7	0.22	
총계	52(100.0)			총계	46(100.0)						
소매	셀 인	52(100.0)	3.1	0.55	여밌장치	지퍼	3(18.8)	3.9	0.14		
길이	엉덩이 위	8(15.4)	3.3	0.03		단추/스냅	13(81.2)	2.4	0.22		
	엉덩이 밑	44(84.6)	3.2	0.23		총계	16(100.0)				
	총계	52(100.0)			커프스	잠금 있음	1(2.2)	3.0	0.00		
총계	52(100.0)			잠금 없음		45(97.8)	3.6	0.24			
총계	52(100.0)			총계		46(100.0)					
셔츠/ 블라우스	종류	셔츠	26(83.9)		니트류	네크라인	V	5(16.7)	3.0	0.00	
		블라우스	5(16.1)					라운드	22(73.3)	3.8	0.08
		총계	31(100.0)					스퀘어	3(10.0)	3.0	0.00
	셔츠 트임	앞트임	23(88.5)	3.6	0.35		총계	30(100.0)			
		앞 반트임	3(11.5)	3.0	0.00	소재	면스판	6(13.0)	4.0	0.00	
		총계	26(100.0)				울스판	4(8.7)	4.0	0.00	
	블라우스 트임	앞트임	4(80.0)	3.5	0.02		폴리에스테르	16(34.8)	4.0	0.00	
		앞 반트임	1(20.0)	3.0	0.00		기타	20(43.5)	3.6	0.22	
	여밌장치	지퍼	1(3.2)	3.0	0.00	총계	46(100.0)				
		단추/스냅	30(96.8)	2.8	0.23	소매	셀인	46(100.0)	4.0	0.00	
	총계	31(100.0)			엉덩이 위		13(28.3)	3.6	0.33		
	커프스	잠금 있음	9(29.0)	3.0	0.00		엉덩이 밑	33(71.7)	3.3	0.33	
		잠금 없음	22(71.0)	3.3	0.64	총계	46(100.0)				
		총계	31(100.0)			착용방법	앞으로 여밌	50(36.0)	3.1	0.25	
	칼라	셔츠	31(100.0)	3.1	0.55		뒤로 여밌	89(64.0)	3.0	0.58	
		면/면혼방	13(41.9)	3.0	0.00		총계	139(100.0)			
		마/마혼방	7(22.6)	3.0	0.00		어깨끈 형태	테이프형	114(82.0)	3.1	0.80
		폴리에스테르	8(25.8)	3.0	0.00	내의형		25(18.0)	3.2	0.80	
	기타	3(9.7)	3.0	0.00	총계	139(100.0)					
	총계	31(100.0)			브래지어	어깨끈 형태	테이프형	114(82.0)	3.1	0.80	
소매	셀인	31(100.0)	3.1	0.55			내의형	25(18.0)	3.2	0.80	
길이	엉덩이 위	9(29.0)	3.2	0.06			총계	139(100.0)			
	엉덩이 밑	22(71.0)	3.1	0.26							
	총계	31(100.0)									

<표 10> 현재 착용중인 하의의 불편정도

N=대상집계

현재 착용 의복		N(%)	불편정도		현재 착용 의복		N(%)	불편정도				
			M.	S.D				M.	S.D			
원피스	트임	앞트임	7(43.7)	3.4	0.08	트임	앞트임	107(91.5)	3.1	0.55		
		앞 반트임	6(37.5)	2.8	0.02		옆트임	10(8.5)	3.5	0.04		
		뒤트임	1(6.3)	3.0	0.00		총계	117(100.0)				
		옆트임	2(12.5)	3.0	0.00		여밌장치	고무줄	12(10.3)	4.0	0.00	
		총계	16(100.0)					끈	7(6.0)	3.0	0.00	
	여밌장치	지퍼	11(68.8)	2.5	0.25	지퍼		95(81.2)	3.0	0.80		
		단추	5(31.2)	2.8	0.03	단추		3(2.5)	3.0	0.00		
		총계	16(100.0)			총계		117(100.0)				
	커프스	참금 없음	16(100.0)	3.0	0.00	바지	소재	마	8(6.8)	3.0	0.00	
	칼라	셔츠	12(75.0)	3.0	0.00			면	32(27.4)	3.0	0.58	
		칼라 없음	4(25.0)	3.0	0.00			면스판	13(11.1)	3.5	0.03	
		총계	16(100.0)					폴리에스테르	39(33.3)	3.8	0.03	
	소재	마	3(18.8)	3.0	0.00			기타	25(21.4)	4.0	0.80	
		면	8(50.0)	3.0	0.00		총계	117(100.0)				
		폴리에스테르	5(31.2)	3.0	0.00		길이	무릎길이	4(3.4)	4.0	0.00	
		총계	16(100.0)					종아리길이	14(12.0)	3.1	0.48	
	소매	셀인	15(93.7)	3.0	0.55			복사뼈길이	65(55.6)	3.1	0.48	
		래글런	1(6.3)	3.0	0.00			복사뼈밑길이	34(29.0)	3.0	0.55	
		총계	16(100.0)			총계		117(100.0)				
	길이	무릎길이	8(50.0)	3.0	0.02	양말	스타킹	발목스타킹	19(57.6)	2.5	0.26	
종아리길이		8(50.0)	3.0	0.08	반스타킹			5(15.1)	3.0	0.00		
총계		16(100.0)			밴드스타킹			6(18.1)	3.0	0.00		
스커트	트임	앞트임	1(5.6)	3.0	0.00			팬티스타킹	3(9.2)	2.7	0.02	
		뒤트임	3(16.7)	3.0	0.00			총계	33(100.0)			
		옆트임	6(33.3)	3.0	0.00		목양말	66(100.0)	3.1	0.28		
		트임 없음	8(44.4)	4.0	0.00			여밌장치	고무줄	6(33.3)	3.7	0.80
		총계	18(100.0)						끈	2(11.1)	3.0	0.00
여밌장치	지퍼	9(50.0)	3.4	0.56	지퍼				9(50.0)	3.4	0.56	
	단추	1(5.6)	3.0	0.00	단추				1(5.6)	3.0	0.00	
	총계	18(100.0)			총계	18(100.0)						
	소재	면	9(50.0)	3.4	0.04	길이	무릎길이	13(72.2)	3.2	0.58		
면스판		2(11.1)	3.5	0.02	종아리길이		2(11.1)	3.0	0.00			
폴리에스테르		3(16.7)	3.0	0.00	복사뼈길이		3(16.7)	3.0	0.00			
기타		4(22.2)	3.2	0.04	총계		18(100.0)					
총계		18(100.0)										

<표 11> 관절염질환자의 의복 개선 요구점

			다중응답		
항목		N(%)	항목	N(%)	
소재 14.0%	경량소재	4(1.8)	디테일 17.8%	트임 필요(앞트임)	12(5.4)
	신축성 소재	25(11.3)		트임 싫음	4(1.8)
	천연소재	2(0.9)		단추 없거나 컷으면	5(2.3)
길이 8.2%	등길이 길게	3(1.4)		지퍼 필요	3(1.4)
	밑위길이 길게	3(1.4)		지퍼 싫음	2(0.9)
	바지길이 짧게	12(5.4)		고무줄	3(1.4)
둘레 60.4%	목둘레 넓게	22(9.9)		골반바지 불편	9(4.1)
	진동둘레 넓게	22(9.9)		칼라 싫음	1(0.5)
	허리둘레 여유있게	16(7.2)			
	엉덩이둘레 여유있게	15(6.8)			
	소매통 여유있게	13(5.9)			
	바지통 넓게	46(20.7)			
총 계			222(100.0)		

Otten(1991)¹⁶⁾도 응답자의 12%가 자신의 관절염 상태 때문에 기성복의 수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수선을 원하는 부위는 옷의 길이와 둘레조정, 여밈 장치, 넓은 트임, 밑위길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관절염질환자들을 배려한 의복의 개발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2) 의복 개선 요구점

관절염질환자에게 의복 개선 요구사항을 주관적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11>와 같으며 바지통 넓힐 것이 20.7%(46명)로 가장 높았고, 목둘레와 진동둘레를 넓힐 것이 각각 9.9%(22명), 그 다음으로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소매통을 여유있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둘레항목의 넉넉함을 요구하고 있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신축성 소재의 요구가 11.3%(25명), 바지길이를 짧게, 앞트임의 요구는 각각 5.4%(12명)의 요구를 보이고 있었다.

Naomi Reich와 Patricia Otten(1991)¹⁷⁾도 조사대상자들은 옷을 편하게 입기 위한 제안사항으로 어깨부위를 편하게, 바지의 넓은 트임, 셔츠의 넓은 암홀과

소매통, 보다 편리한 주머니위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 관절염질환자 모두는 허리라인이 좀 더 여유롭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즉, 여성 관절염질환자는 보다 용이한 옷입기를 위하여 의복의 허리둘레를 자신의 허리사이즈에 맞추어 입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넉넉한 의복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격하게 눈에 띄는 장애를 보이지는 않으나 의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여성관절염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복불편정도와 요구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절염질환에 따른 의복 불편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는 20~6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관절염 발생시기는 3년 미만인 21.2%이고, 18.5%의 환자는 의복 착용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신체 중 가장

불편해하는 부위를 무릎이라고 응답한 관절염질환자는 바지와 팬티의 착탈의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손가락부위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관절염질환자는 바지와 셔츠/블라우스의 착탈의를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 의복착탈시 불편함 정도를 살펴본 결과 상의 3항목, 하의 8항목에서 불편함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하의류 중 '바지통에 다리 끼우고 뺄 때'와 '바지를 엉덩이 위로 올릴 때'의 항목은 통증도 함께 동반하고 있고, 연령대별 신체불편부위를 알아본 결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무릎부위를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어 바지의 착탈의가 관절염질환자에게 가장 힘든 동작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 의복 착탈시 불편함을 살펴본 결과 같은 관절염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청년과 노년 집단간에 불편함의 차이가 명확히 나고 있어 노년 관절염질환자를 위한 의복착탈이 용이한 의복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현재 착용중인 의복종류와 불편정도를 알아본 결과 가장 불편하다고 지적되었던 바지의 착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바지의 모든 항목에서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지가 일단 착용하고 나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복이고, 개인에 적합한 디자인과 사이즈를 선별하여 착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항상 착용하고 있는 의복에 대하여 익숙함을 길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의복개선 요구점으로는 응답자들은 불편함을 느끼면 수선보다는 편한 옷을 구매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바지통과 둘레항목의 넉넉함과 신축성소재, 바지길이 짧게, 앞트임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관절염질환자는 일상생활활동 중 의복 착탈행동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의류의 착탈행동에 있어서 통증을 동반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요구하는 넉넉한 둘레항목과 신축성소재등의 내용을 종합한 정상인과의 디자인적 차별이 없으면서도 불편감을 덜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관절염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타 연구의 결과와 충분히 비교분석하지 못하였고, 넓은 연령대에 비해

연령대별 응답자수가 작아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관절염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관절염질환에 따라 환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불편특성이 다르므로 관절염 종류를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며, 건강인과의 비교를 통한 의복 착탈 행동에 관한 실험연구, 관절염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개발과 패턴 개발, 의생활 실태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관절염질환자들의 의생활 고충을 이해하고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적 의류학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문호(2004), *스스로하는 관절염치료*, 삼호미디어, pp.34-59.
- 2) 김성윤(1997),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 *가정의학회지*, 18(11), pp.1279-1290.
- 3) 박성희(1999),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조사연구", *류마티스 건강학회지*, 6(1), pp.7-21.
-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2006), *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p.73
- 5) 강수균 外(2001), "한국노인의 일상생활활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1), pp.1-14.
- 6) 田中直人·見寺貞子(2005), *ユニバーサルファッション*, 東京: 中央法規出版, p.44.
- 中央法規(編)(2002), *ICF國際生活機能分類-國際障害分類改定版*.
-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p.cit., p.24
- 8) 박성희, op.cit., pp.7-21.
- 9) 김미한(2002),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통증과 건강행위 이행", *노인복지연구*, 18, pp.247-272.
- 10) Mackinnon, J. R., · Avison, W. R., · McCain, G. A.(1994), "Pain and functional limitation in individuals with rheumatoid arthritis".

-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 pp.49-59.
- 11) Dallas M. J. · White, L. W.(1982), "Clothing Fasteners for Women with Arthriti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6(8). pp.515-518.
- 12) Naomi Reich · Patricia Otten,(1991), "Clothing and dressing needs of people with arthriti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4), pp.34-40.
- 13) "혁, 다리가--'스무살 늙은이'로세", (2006, 9, 11), *경향신문* 자료검색일 2006, 10, 11, 자료 출처 www.khan.co.kr
- 14) 김순분(1991), "뇌성마비인의 의복여밈 수행능력과 수지기능", *지체부자유아교육*, 25(1), pp. 1-27.
- 15) Naomi Reich · Patricia Otten, op.cit. pp.34-40.
- 16) Ibid., pp.34-40.
- 17) Ibid., pp.34-40.

접수일(2008년 5월 27일)

수정일(1차 : 2008년 7월 8일, 2차 : 7월 30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4일)